

아동 및 청소년의 인성교육

박 태 수*

〈 목 차 〉

- | | |
|--------------------------------|------------------|
| 1. 인성교육의 필요성 | 5.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
| 2. 미래에 길러야 할 인간상 | 6. 인성교육을 위한 제언 |
| 3. 인성교육은 왜 자아존중감
향상이어야 하나 ? | 7. 마무리 |
| 4. 가정과 학교에서의 인성교육 | 참고문헌 |
| | Abstract |

서 론

“만일 당신이 개인을 있는 그대로 대접한다면 그는 그 모습대로 될 것이요,
만일 당신이 그가 되고자 하는대로 대접한다면, 그는 되고자 하는 인물이 될 것이다.”

(Frey & Carlock의 「자기존중감 형성」p.31)

1. 인성교육의 필요성

엄청난 변화가 예견되는 21세기가 우리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21세기는 정보화·세계화 시대로서 국가간 경쟁이 지금보다 더욱더 치열해질 것이 예상된다. 이 시대에는 어떠한 인간을 필요로 할 것인가? 흔히 21세기를 주도하는 유능한 인간은 올바른 인성을 바탕으로 창의력이 뛰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를 이끌어갈 사람은 다름 아닌 오늘날의 아동과 청소년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지성과 창의성, 그리고 인간적인 심성이 조화롭게 발달된 책임있는 인간으로 길러져야 할 것

*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교직과 교수

이다. 그러므로 인성교육과 창의성교육은 교육의 핵심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인성교육은 모든 교육활동의 근본이며, 인생의 바탕이다. 급변하는 시대에 물질만능주의와 이기주의, 인명경시 풍조가 만연하는 이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 실천을 통한 바른 인성교육이 절실한 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견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교육의 최우선 과제를 지적성취에 두고 있다. 누구나 인성교육의 절실함을 인정하면서도 내 자녀가 대학이라는 관문, 그것도 일류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생각에 깊이 빠져 있다. 높은 감성능력을 지닌 따뜻한 가슴의 자녀를 원하면서도 경쟁에서 지지 않는 지적 소유의 자녀가 되기를 갈망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아동과 청소년들은 사회심리적으로 부적응 상태에 놓여있으며, 급변하는 새로운 사회에 도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혼란해 하거나 방황하고 있다.

오늘의 아동·청소년들은 산업사회의 변화와 물질적 풍요 속에 태어나 풍부한 감정과 폭넓은 인격의 접촉을 곤란하게 만드는 비인간화의 과정을 겪으며 성장하였다. 개방사회로의 변화는 세계문화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지만 그로 말미암아 이질적인 외래문화를 받아들여 가치관의 혼란, 주체성의 상실을 초래하여 인성교육에 있어서는 극심한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진통은 아동·청소년들이 그들을 확고히 할 자아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예컨대, 학교에서 공부하는 자기, 가정에서의 자식의 역할을 해야 하는 자기, 되고자 하는 자기, 자기가 스스로를 본 자기 등이 하나로 통합되지 못하면 진정한 자기가 누구인지, 나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며, 어떤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지가 혼란스럽다. 최근 아동·청소년들의 학교폭력을 보더라도 그들의 가치체계는 혼란 내지 전도되어 있으며, 우리의 생활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어서 이것을 바로잡는 일은 사회전체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1997년도 한 해만 해도 정상적인 교육으로부터 중도탈락한 학생이 모두 769명이나 된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129명(남 54명, 여 75명), 고등학교가 640명(남 380명, 여 260명)이며, 이를 유형별로 보면, 가출·비행·장기결석이 260명, 학습 및 학교생활 부적응이 221명, 가정사정이 193명, 기타 75명으로서 가정사정과 학교생활 부적응이 사회문제로 발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학교에서 정상적인 과정을 밟지 못하고 중도에서 탈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낮은 자존감으로 인하여 자신은 옳지 못하고, 무가치하며, 무능력하다고 느껴서 좌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마다 늘어나는 우리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하고 이들을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는 길은 그들이 자신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기존의 교육체계 아래서는 성인들조차도 자기를 존중하는 삶의 방법을 체계적으로 받아볼 기회를 갖지 못하였고, 그 결과 아동·청소년들이 자기를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주제에서는 아동·청소년에게 길러주어야 할 중요한 인성교육의 핵심을 자아존중감 향

상에 두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하위 주제로 미래에 길러야 할 인간상, 인성교육은 왜 자아존중감 향상이어야 하는가?, 가정교육과 인성의 형성, 학교교육과 인성의 형성,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인성교육을 위한 제언의 순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2 미래에 길러야 할 인간상

오늘날 우리 사회가 바라는 인성교육은 다름 아닌 인격교육을 뜻한다. 정범모(1992)는 미래에 길러질 인간상은 보다 높은 지력, 보다 예민한 인간적 감수성, 보다 투철한 가치관, 더 넓은 국제시야와 더 긴 미래 전망, 더 굳센 의연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인격적으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인간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인성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정범모가 제시한 인간상 중에서 인성교육과 관련된 것을 보면, 보다 예민한 인간적 감수성, 보다 투철한 가치관, 더 굳센 의연성을 들 수 있다.

보다 예민한 인간적 감수성이란 남이라는 인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남 생각도 하며, 남이 슬픈지 즐거운지, 이렇게 하면 남이 아파할지 좋아할지를 예민하게 감지하고 나아가 거기에 “감정이입”을 할 줄 아는 특성을 말한다. 또한, 인간적 감수성은 도덕적 심성의 출발점이 된다. 반면에 인간의 희비와 애환에 둔감하고, “남이야” 어떻게 무관해 하는 상태는 근본적으로 비도덕적인 상태에 있다고 하겠다. 오늘날의 문제는 입시위주, 성적위주의 거의 강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인간적 배려를 받아볼 겨를도 없이 집단주의적, 권위주의적 풍토로 인해 예민한 인간적 감수성을 상실하고 있다.

보다 투철한 가치관이란 도덕 규범을 포함해서 “해야할 일”, “바람직한 일”에 관한 신념으로써 그 가치관의 타당하고 명석한 인식과 동시에 웬만한 어려움이나 유혹에는 흔들리지 않고 그 가치관의 방향으로 실행하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굳센 의연성이란 힘든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현실에 과감히 도전하여 극복해가는 신체적, 정신적 힘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래사회는 늘어나는 인구, 줄어드는 자원, 고도화하는 기술, 복잡화하는 사회조직 등으로 인해 보다 굳센 의연성을 지닌 사람을 요구하지만, 우리의 청소년들은 풍요와 평온에 익숙하고, 과잉보호로 인해 조금만 힘들면 허덕거리거나, 그만 두거나, 참지 못하는 신체적, 지적, 정서적 약골이 되어가고 있다.

이처럼 미래 사회는 인간적 감수성을 지니고 가치관이 투철하며, 굳센 의연성을 지닌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동시에 개인적으로는 주체의식이 분명하고, 사회적으로는 공동체의식을 갖춘 사람을 필요로 한다. 한 개인이 인격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식 이외에 갖추어야 할 인성들이 있다. 이러한 인성들은 주로 대인관계를 통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가정이나 학교는 인성계발의 장으로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원동연(1998)은 전인적인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다이아몬드 칼라의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상은 첫째, 심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목표의식이 뚜렷하고, 풍부한 정서력을 가지며, 타인 중심의 생각과 바른 뜻을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고, 둘째, 냉철한 지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지식과 함께 이를 바르게 활용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며, 셋째, 체력을 가진 사람, 넷째, 자기관리가 잘 되어 시간을 우선 순위대로 사용하며, 자기를 개혁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다섯째, 좋은 인간 관계를 가지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남을 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다.

또한 전인적인 인간과 관련하여 Maslow(1954)는 만일 어린이가 자아개념 발달 단계를 완전히 지나서 긍정적으로 자기를 존중한다면, 그는 '자아실현'을 한 사람으로, 또는 '충분히 기능'하는 자로 기술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자아실현을 한 사람의 특징으로, 현실적으로 적응되어 있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있는 지금의 세상을 수용하고, 자발성이 높으며, 자기중심적이라기 보다는 문제중심적이고,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며, 가치와 태도가 민주적이며, 목표와 수단을 혼동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Kelly(1962)도 충분히 기능 하는 사람으로 자기를 좋게 생각하고, 타인을 좋게 생각하며, 타인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변화와 생성과정에서 세계의 한 부분으로 자기를 보고, 낙천적이고, 잘못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고, 인간의 가치를 개발하거나 유지하고, 자기 가치와 일치되게 살고, 그리고, 창조적이라고 진술했다.

실제로 필자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초·중등학교 시절 "가장 생각나는 선생님은 어떤 분이었나"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빈도순으로 제시해 보면,

① 학생과 함께 하며 어울리는 선생님(친구나 언니처럼), ② 학생들 각자에게 관심을 나타내는 선생님, ③ 학생이 고민할 때 상담을 해주며 힘이 되어주는 선생님, ④ 수업시 이해하기 쉽게 강의하거나 재미있게 강의하는 선생님, ⑤ 학생에게 사랑과 실천을 보여주는 인자하고 자상한 선생님, ⑥ 학생을 한 개인으로서 존중하며 교사와 학생을 동등한 위치에서 바라보는 선생님, ⑦ 학생들 입장에서서 판단하고 학생의 행동을 이해해주는 선생님, ⑧ 편애하지 않고 모든 학생에게 공평하게 대해주는 선생님, ⑨ 실수를 하더라도 질책하기보다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우어 주는 선생님, ⑩ 학생의 장래를 결정하고 바른 길로 이끌려고 노력하는 선생님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제시한 인간상들은 모두 긍정적인 자기존중의 결과로 건강한 자아개념을 형성할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인간의 전 생애를 통하여 노력해야 할 목표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상이 지니고 있는 공통점은 타인에 대한 따뜻한 감성과 자신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인간임을 알 수 있다. 학생들에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선생님의 조건을 보더라도 지식이 풍부한 선생님이기보다는 좋은 인성을 가진 선생님임을 알 수 있다.

3. 인성교육은 왜 자아존중감 향상이어야 하는가?

역사 이래로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관심, 즉 자아개념과 자기존중감에 대한 관심을 지속해 왔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너 자신을 알라”라든가, 섹스피어가 말한 “너 자신에게 진실하라. 그리고 언제나 그것을 추구하라, 그러면 너는 어느 누구에게나 진실될 수 있다”라든가, 성경의 시편에서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곧 자기 이웃을 사랑 하는 필수요소임을 시사한다(Scotfield, 1917).

이처럼 자기에 대한 관심은 많은 학자들로 하여금 자기에 대한 다양한 개념들을 형성하였고, 이러한 자아개념은 곧 인성에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삶을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본 주제에서는 이러한 자기와 관련된 개념들을 살펴보고 결과적으로 자기를 존중하는 일이 우리의 인성교육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인성이란 ?

인성이란 잠재적 가능성, 태도, 가치관, 동기, 행동방식 등의 특성에 의해 개인의 기질, 성격, 인격, 개성을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의미를 갖고 있다. 지금까지 대개 인성은 성격이나 개성 그리고 인격과는 구분되어 어떤면에서는 이것들 보다 상위개념에 속한다고 이해하고 있는가 하면, 다른면으로는 감정이나 정서, 인간관계, 가치관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매우 애매 모호하고 추상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간의 정의적 행동, 책임감, 인내심, 타인이해, 좌절극복, 폭력 안쓰기, 불안감 극복,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기 등 과거보다 인성의 개념이 구체화되어 제시되고 있다(김낙구, 1993). 이러한 인성은 환경적인 요인이 지능의 경우에서 보다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합의되어 있는 사실이다. 모든 학자들이 합의하고 있는 사실 중의 하나는 인간의 인성형성에 있어서 어렸을 때 가정환경내의 경험과 성장과정에서의 사회환경내의 경험, 그리고 학교교육 등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성이 건전하게 형성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여부는 가정, 사회, 학교의 교육 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강준모, 1997).

Tigner(1993)는 좋은 인성을 가진 사람의 근본적인 특성은 사람을 인간으로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인관계를 친구관계에서 시작하여 지역사회 의식으로 발전시키고, 그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 책임감을 가진다. 따라서 인성교육은 좋은 사고와 행동을 가르치고, 시범화 되며, 형식적 교육을 통해서 반복되어야 함을 가정한다. 이러한 인성교육의 결과 학생들이 존경, 친근, 책임감, 자신감, 참을성, 공정, 지혜와 같은 덕목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이명숙, 1997, 재인용).

이처럼 인격, 인품, 성격, 개성이란 의미를 지닌 인성은 파행적인 우리의 교육현장에서 ‘인성교육’

이란 이름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인성교육이란 인간다운 품성을 고양시키는 교육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김낙구(1997)는 인성교육을 좁은 의미로 도덕·논리교육의 한 부분으로 보았으며, 넓은 의미에서는 도덕적, 논리적 인간을 육성하는 교육으로 보고 인성교육의 내용은 논리·도덕교육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성교육은 인간의 본성을 선이라고 보고 교육을 통하여 인간의 선한 인격을 키워야 하는 것이라고 본다(김낙구, 1997).

인간사회에서 이와 같은 인성은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데서 출발한다. 그러려면 우선 자신에 대해서도 자존감을 가져야 하고, 자존감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존중이라고 볼 수 없다. 이것은 오히려 비굴성과 자기열등감의 다른 표현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재적 자기 열등감은 반사회적 행동으로 표출되기 쉽다. 따라서 가정과 학교가 일차적으로 아동·청소년들에게 심어주어야 할 인성교육의 내용은 자아존중감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성을 '자기와 타인을 존중하는 인간다운 품성'이라고 보고, 이러한 품성을 기르는데 영향을 미치는 자기존중감 향상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2) 자기·자아개념·자기존중감

많은 학자들은 "자기"에 대해 다양한 개념들을 제시하고 있다. Carl Rogers는 "만일 내가 사람들의 가장 어려운 점을 찾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자기 자신을 경멸하거나 무가치하고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점"이라고 하였고, Eric Fromm은 "남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는 선택할 여지가 없다. 그들 자신을 사랑하는 태도는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하였으며, Abraham Maslow는 "어떠한 심리적 건강도 개인의 중요 관심이 타인이나 자신에 의해 근본적으로 수용되고, 사랑받고, 존경받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했다. Hall과 Lindzey(1970,1978)도 자아에 대해 20개 이상의 다른 관념(idea)을 언급했으며, Hinsie 와 Campbell(1970)은 그들의 정신병리학 사전에서 자아와 관련된 개념에 대한 정의를 10페이지에 걸쳐 제시했다(Frey & Carlock, 1978).

개인은 종종 이상적인 자기, 실제적인 자기,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진 자기(presenting self)의 개념 이외에 여러 다른 자아개념들을 갖고 싶어 한다. 이러한 개념들은 환상적인 자기-현실이 방해하지 않는다면 개인이 되고 싶어하는 자기(예를 들면, 내가 여자가 아니라면 씨름선수가 될 수 있을텐데, 내가 키가 조금 더 컸더라면 더 빨리 달릴 수 있을텐데)를 갖고 싶어 하거나, 자아 이상(ego ideal)-개인이 당연히 되어야 한다고 느끼는 자기(예를 들면, 나는 보다 인내심이 강해야 하고, 보다 관용적이어야 한다)가 되고 싶어 하며, 미래의 자기 또는 가능한 자기-개인이 될 수 있는 자기(예를 들면, 나는 몸무게를 5kg 줄이려고 한다)를 요구한다. 그리하여 현실적인 자기(현재의 개인)와 이상

적인 자기(되고 싶어하는 자기) 간에 보다 큰 일치를 이루게 되면 자기존중감을 높이고 심리적으로 현실에 잘 적응하게 된다(Frey & Carlock, 1989).

그리고 이러한 자아의 발달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또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 Peck(1978)은 인간은 생의 초기인 2, 3세 무렵에는 자기 힘의 한계와 외부 환경과의 관계에서 타협하고 절충하는 때라고 보았다. 그 이전에는 아기가 자기의 소원이 반드시 어머니의 요구와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기는 자기의 소원은 어머니의 요구와 일치해야만 한다는 당위성이나 일치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집착한다. 이러한 집착 때문에 보통 두 살짜리 아이는 자기 부모와 형제들이 마치 자기 소유의 군대에 있는 졸병들이나 되는 것처럼 그들에게 함부로 명령을 내리고 부려 먹으려고 한다. 그래서 보통 이 연령의 아이들을 '미운 두 살'이라고 한다. 세 살이 되면 아이는 자신은 상대적으로 무력하다는 현실을 받아들인 결과 전보다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다루기가 쉬워지며, 자기 힘의 한계를 현실적으로는 인정할지라도, 차츰 자라나 청소년기에 이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제한된 능력을 인정하게 된다. 또한 각 개인은 모두 약하고 무능력한 개체이고, 사회라는 조직체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개체들임을 알게 된다. 사회 안에서 그들은 특별히 다른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 자신의 개인적 자아 정체감, 영역, 한계성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 부터 고립되어 있음을 느끼게 된다(신승철 · 이종만, 1991).

이처럼 개인은 성장과정에서 점차 자기를 지각하며 자라듯이 자아개념(self-concept)이란 한 개인이 그가 처한 환경 속에서 추출해 낸 자기 자신에 대한 지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자아인식은 한 인간으로서의 주체를 형성해 가는 능력이다. 사람은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를 규정하고 또 그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지 부정적으로 생각할 지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기 자신에 대한 지각이 그 사람의 행동 특히 사회적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즉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매사에 자신있게 대처하고 주변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지니고 있는 개인은 부정적인 자기평가에 의해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과도한 자기처벌을 가하는 등의 부적응 행동을 하게 된다(이윤옥, 1998).

위에서 보듯이 개인은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자아개념에 따라 자기에 대한 존중감이 달라진다. 자아존중감은 자아개념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자신에게 있다고 지각되는 여러 속성에 대한 느낌이나 평가를 말한다. 자아존중감에는 자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포함된다. Coopersmith(1967)는 자아존중감을 개인 자신에 대한 평가로써, 관습적으로 유지되고, 자신이 능력이 있고, 의미 있고, 성공적이며, 가치 있다고 믿는 정도를 가리키며,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이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그들은 현저하게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이윤옥, 1998, 재인용). 즉 자아개념은 자신의 개인적인 표현으로부터 형성한 상이고, 자아존중감은 그 상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이다. 그러므로 자아는 단지 주관적인 느낌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한다. Erikson(1963)도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의 지나온 일생을 후회 없이 수용하고, 현재 생활에 만족하며, 과거-현재-미래 사이의 조화된 견해를 가지며,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다가올 죽음을 인정하고 기다리는 태도를 갖는 것이다. 그러나 자아존중감 확립에 실패하면 절망감이 나타나게 되어 자기의 일생을 후회스럽고 불만스럽게 생각하게 되므로 죽음에 대한 불안이 심하여 절망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한미정, 1998).

자아존중감은 자아개념의 정서적, 지적, 행동적 측면에 대한 평가이다. 자기 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가치롭게 여기고,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평등하다고 본다. 그들은 완벽한 것처럼 행동하지 않으며, 그들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성장하고 개선하려고 한다. 반면에 자기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거절, 자기 불만족, 자기 멸시, 그리고 자기비난을 한다. 자기존중감은 두 개의 상호관련 요소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삶의 능력에 대한 느낌이고, 다른 하나는 삶의 가치에 관한 느낌이다. 능력이 있다는 것은 개인의 존재에 대한 현실과 관련되는 것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나 느낌, 그리고 행동에 대한 신용을 포함한다. 가치있다는 것은 자기자신을 확신하고 존중감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3)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아동·청소년들이 보여주는 문제상황은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일까? 무엇보다 근본적인 것은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자기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이른바 자아개념은 그들의 중요한 행동 결정요인이다. 인간은 누구나 '나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공부 잘하고, '나는 공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공부 못하는 경향성을 갖는다. 나는 모범생, 나는 깡패, 나는 비겁자, 나는 용기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런 '자아개념'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된다.

K라는 한 소년원생은 면담과정에서 이렇게 말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너는 나중에 깡패가 될 거야'라는 말씀만 안 하셨어도 저는 지금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라며 비장한 목소리로 그 당시의 담임 선생님을 원망했다. 이 소년원생은 초등학교 다닐 때 소위 개구쟁이어서 다른 아이들을 때리거나 놀려서 울리기 일쑤였다. 그러던 어느 날 K군이 또래 친구를 때려서 울리자 담임 선생님이 꾸중을 하시면서 "너는 커서 깡패가 될 거야"라고 하였던 것이다. 그 당시 담임 선생님은 화가 나기도 했겠지만 그의 감정 전달 방식은 소년에게 치명적인 자아 손상을 입히고 말았다. Frey 와 Carlock(1978) 이 말했듯이 만일 그 당시 교사가 그 아동을 있는 그대로 대접했다면 그는 그 모습대로 되었을 것이요, 만일 교사가 그 아동이 되고자 하는대로 대접했다면, 그는 되고자 하

는 것이 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아동·청소년들의 자아개념 형성은 주변의 권위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해주느냐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권위있는 사람들이란 중요한 타인들로서 아동·청소년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말하며, 아동·청소년들의 삶에서 이런 중요한 타인들에 의해서 그들이 대우받는 방식은 그들이 자신을 어떤 방식(긍정 또는 부정)으로 지각하게 하느냐를 결정한다. 중요한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청소년들은 그들 자신이 사랑 받는지, 중요 받는지,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아닌지, 성공적인지 실패적인지, 존경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타인이란 부모, 친척, 친구, 교사등이 해당된다. 가정·학교 교육에서 자기 존중감이 높은 부모나 교사는 아동·청소년들에게 믿음을 주지만, 그렇지 않은 부모나 교사는 불안을 심어준다. 내 자신을 믿지 못하고 내 자신을 부정하는 아동·청소년이 자신에게 긍정적인 요소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고 자신을 사랑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 소년도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나머지 타인을 해치는 소년이 되어 소년원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아동·청소년들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데 다음과 같은 자아개념으로 인해 방해받는다. 즉 거부에 대한 두려움과 비판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서투른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그들은 대인관계의 형성에 있어서 불완전한 신념들을 갖고 있다. 즉 “나는 사랑스럽지 않고 똑똑하지도 못하다”라든가, “사람들은 나에게 실망할 것이다”라든가, “사람들은 신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만일 아동·청소년들이 사회적 관계체제를 확장하는데 방해될 수 있는 신념을 인식하게 되면 그들은 이러한 신념을 보다 현실적인 신념으로 대치할 수 있고, 보다 행복한 존재가 되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J라는 여성의 나쁜 자아가 형성되는 경우를 보자.

아버지 : “네가 여자이기 때문에 나의 성적 충동을 자극하고 있어. 너는 내 성적 행동에 책임이 있어.”

어머니 : “내가 너를 가지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할머니 : “완벽해라, 방해가 되지 마라, 어린애처럼 굴지마, 너는 귀찮은 존재일 뿐이야.”

선생님 : “너는 자신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해, 반애들 앞에 나와서 네가 한 행동을 그 들에게 말해.”

학교애들 : “너는 똥똥하고 못 생겼어. 너는 여자애답지 않아.”

(Frey & Carlock, 1989)

4. 가정과 학교에서의 인성교육

아동·청소년들의 인성교육에서 적극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바로 부모와 교사이다.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친 사회적 가치를 가르치고 지도해야 하며 그들로 하여금 가치를 적용하고, 논의하고,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사실상 오늘날의 아동·청소년들에게 가치를 가르치는 것은 우리 사회와 성인의 근본적인 역할이며, 사회적·도덕적 가치를 전수할 부모·교사의 책임은 막중하다 할 것이다.

1) 가정교육과 인성의 형성

Sullivan(1953)은 생후 6주 되는 유아는 '좋은 세상에 좋은 나' 또는 '나쁜 세상의 나쁜 나' 와 같은 자아개념을 가진다고 했으며, Erikson(1968)은 생후 1살이 되면 신뢰 또는 비신뢰가 형성한다고 기술 하였다. Terman (1921)과 Sears (1980)의 종단적 연구에서도 자기에 관해서 긍정적 느낌을 표현하는 재능이 있는 아이들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자기에 관해서 긍정적 느낌을 표현했으며, Gorden(1962)은 '나' 라는 자아는 3살에 나타나듯이 어린이의 자아개념은 그가 어떤 유형의 사람이 될 것인가에 중심적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Rosenberg(1965)는 또한 혼자인 어린이들은 한 사람 또는 그 이상의 형제를 가진 다른 어린이들보다 더 높은 자기 존중감을 갖고 있음을 발견했으며, 출생 순서는 여러 형제들보다 어린이의 자기 존중감에 덜 영향을 미친다. 또한 대체로 자매가 있는 소년들은 남자형제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소년들보다 더 자존감이 있다. 또한 부모 불화는 어린이들에게 낮은 자존감을 나타나게 하였고, 어린이들은 부모에게 보다 부정적인 태도를 발달 시켰다(Frey & Carlock, 1989). 이러한 결과는 자아개념 발달에서 부모 역할과 주변의 인물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처럼 한 개인의 인성은 어린 시절 가정에서 어떻게 성장했느냐와 깊은 관련이 있다. 가정은 자녀들에게 중요한 교육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개인은 그의 성장과정에서 있어야 할 적절한 모자 또는 부자간의 인간관계가 없을 경우 애정 결핍으로 인한 욕구 불만, 자기 실현, 자기 승인의 욕구들이 충족되지 못하는 등의 비규범적 행동을 하거나 거칠고 뼈뺀 성격으로 성장하게 된다. 오늘날 핵가족의 현상은 대가족의 교육적 기능보다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약하다는 것이 사실이다. 또 여성의 사회진출은 가정을 교육적으로 약화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모성실조의 현상"에서 오는 가정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고 그러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발달상의 결함이 없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이 교육의 과제이다.

아이들에게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가? Peck(1978)은 인생초기의 아이들에게 부모란 이 세상의 전부라고 말한다. 아이들에게 있어 부모는 세상과 같다. 아이들은 다른 부모들이 자신의 부모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모른다. 자기 부모가 하는 방식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 부모를 믿을 수 없다"는 현실 인식은 "나는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는 것으로

나아간다.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것이 '지도(map)'가 되어서 이걸 가지고 청소년기와 성인기로 들어간다. 이 지도와 많은 실망의 경험으로 인해 잔뜩 쌓인 반감을 가지고 있다면 각기 권위를 지닌 다른 사람들 - 경찰, 선생, 고용인 - 과 갈등을 갖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주는 사람들은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그의 지도를 더욱 확고하게 해줄 뿐이다(신승철 이종만 역, 1991).

아동·청소년들의 인성발달이 초기 유아기에 거의 결정된다는 것은 이미 일반화된 이론이다. 이렇게 본다면 아동·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인성발달을 형성시켜 줄 수 있는 책임이 부모에게 주어지고 있는 셈이다. 인성은 부모의 실천적 행위에 의하여 형성되며,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인성을 형성할 수 있는 가장 일차적인 공동체가 된다. 코메니우스가 말했듯이 가정은 모든 인간이 어릴 때부터 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어머니의 무릎학교' 이다(이숙중, 1994).

이처럼 우리의 성장 발달에 가장 기본이 되는 문화는 가족 문화이고, 우리의 부모는 그 문화의 지도자들이다. 더욱이 가족 문화의 영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행동으로 보여 주는 경험세계다. 즉 그들이 서로에게, 또는 가족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는 자신에게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자라면서 사회의 본질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가족이라는 작은 사회에서 실제로 경험하기 때문이다.

2) 학교교육과 인성의 형성

『새 학년이 시작되는 첫날 한 여선생님이 교재를 가지고 급하게 자기반 교실로 들어갔다. 교장선생님은 그 교재가 그 반 아이들에게 어려운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급히 그 선생님의 교실로 들어갔다. 그런데 교실에는 선생님과 아이들이 행복한 얼굴로 바쁘게 활동하고 있었다. 교장선생님은 깜짝 놀라 그 선생님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어머! 대체 어떻게 된거지요? 선생님은 이 아이들의 IQ 점수를 알지 못하셨나요?” 그 때 그 선생님은 아이들 이름 옆에 쓰인 숫자가 아이들의 사물함 번호인 줄로 알았다고 대답했다.』 (Frey & Carlock, 1989)에서

이 이야기는 선생님이 아이들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면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 불행하게도 많은 아이들은 자신을 믿지 못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있다. 아이들의 삶에 어른들은 그들 자신을 바라보듯이 그런 시각으로 아이들을 종종 바라보게 된다. 만약 선생님들이 긍정적인 자아 존중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아이들은 자신이 접하게 되는 삶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일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친다. Hartline(1982)은 긍정적인 자아 존중감은 학업에서 높은 성취를 나타내며, 낮은 자아 존중감은 낮은 학업성취를 갖는다고

하였다. 자신과 자신의 학습 능력에 대해 좋게 느끼는 학생들은 더 많이 배우려고 하며, 학교 다니기를 더 좋아하며, 꾸준히 출석하며, 오랫동안 학교에 남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패의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은 낮은 수준으로 활동하며 낮은 자아 존중감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학교는 그 동안 지혜가 아닌 지식 위주로 가르쳐 왔을 뿐 아니라 전인교육이 아닌 지식 훈련의 장으로 변질되었다. 그러다 보니 지적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학교에서 별로 할 일이 없게 되고 자연 비행과 관련된다. 학생들의 비행을 보면 학교의 제요인들과 깊은 관련이 있다. 교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학생,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 공부에 대한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학생, 부모가 바라는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하는 학생 일수록 비행을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

Marion(1981)은 어른들은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자기존중감과 행동에 장기적인 영향을 끼친다. 개인은 어린 시기로부터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으로 발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으로 부터 자아개념에 대해 수많은 심리적 장애를 만나게 되는데, 이러한 장애 중에 일부는 개인의 삶을 통해 지속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사들이 어떤 모습으로 학생을 가르치느냐에 따라 학생의 자기 존중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교사들의 잘못된 학생 교육 장면을 보면,

1) 교사의 권위적이고 지나친 억압이 학생의 자기존중감을 떨어뜨린다.

어떤 교사는 학생들을 지나치게 통제한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주의를 주고 감독을 한다. 학생이 하는 거의 모든 일은 점검되며, 이로 인해 학생은 곧 자기 자신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배운다.

권위적 교사는 자신이 언제나 결정자로서, 명령하고, 제안하고, 학생을 과소평가하고, 무시하며, 벌을 주거나, 야단을 쳐서 그들을 다룬다. 학생의 요구에 대해서도 정서적으로 냉담하고 조급하며 감정이입의 결핍을 보인다. 교사의 태도는 “아직은 못 하지만 언젠가는 해내리라”는 희망에 찬 학생의 감정을 좌절시키고, 스스로 세상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학생의 열정을 방해한다.

2) 지나치게 완전주의적이고 비판적인 교사는 학생의 자기존중감을 떨어뜨린다.

대체로 완전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교사는 학생에게 지나치게 비판적이고 지나치게 많이, 그리고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학생에게 너무 높거나 학생이 반응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오기를 기대할 때 학생의 자기존중감이 낮아진다. 대부분 학생의 낮은 자기존중감은 교사나 그 밖의 성인들에 의해 부여된 부정적인 평가로부터 형성될 수 있다. 대체로 학교장면에서 학생의 작은 긍정적 성취는 간과되고, 그 초점이 학생의 부족한 부분에 두기 때문에 이러한 인정결핍은 학생의 낮은 자기 존중감을 갖게 한다.

3) 교사의 거절이 학생의 자기존중감을 떨어뜨린다.

학생들은 그들 자신의 독특한 인식장치를 통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사들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거절을 경험한다. 학생의 행위를 주의 깊게 보지 않거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는 등 무시하는 것과 같은 교사의 태도는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거절의 한 형태이다. 종종 교사는 그가 싫어하는 학생을 거절하며, 이러한 거절은 학생의 자아개념 발달에 매우 분명한 장애물로 작용한다.

Adler에 의하면 어른에 의해서 무시되거나 관심밖에 있는 아동의 병리적 열등콤플렉스는 매우 위험하다. 어린이는 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많은 도움과 지지가 필요하다. 만약 도움과 지지가 부족하든지 전혀 얻지 못하게 되면, 그는 도움이 부족하다고 느끼기보다는 자신의 무능함을 절감하며, 자신의 힘으로 성취할 수 없음을 체험하고, 결국 자신은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자아상을 갖고 좌절하게 된다.

4) 교사의 잘못된 훈계의 개념이 학생의 자기존중감을 떨어뜨린다.

교사는 가끔 학생의 행동에 대한 정체성을 혼란시킨다. 어떤 학생이 점심을 먹은 후 곧바로 간식을 먹을 때 교사는 그 학생을 “버릇없는 학생”이라고 꾸중한다. 교사는 학생이 간식을 먹는 행위에 초점을 두기보다 학생의 특성에 초점을 두어 나무란다. 어떤 행위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이 “나쁘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학생은 행위와 성격의 경향간에 혼란이 오게 되어 자기 존중감이 떨어지게 된다.

5.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Peck(1978)은 믿음을 상실한 사람이 믿음을 갖게 하려면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하나는 사람들을 믿어 보는 경험을 하는 일이며, 다른 하나는 “다시 배우는 것”이다. 다시 배우다는 것은 자기 부모에 대한 그의 견해를 바꾸는 것으로서 부모들이 그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을 인식하고, 그래서 그가 정상적인 소년기를 갖지 못했으며 부모들이 보통 이하로 자신의 요구에 냉담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인식하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신승철, 이종한 공역, 1991).

또한 자신의 정서표현의 기회를 갖는 일이다. 자기존중감이 높은 사람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자신의 감정과 정서를 솔직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표현할 줄 안다는 것이다. 감정과 정서는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부풀어서 터지기 쉬운 풍선처럼 격한 감정이나 진한 감정은 표출되게 마련이다.

본 프로그램은 아동·청소년과 성인들이 “다시 배우기 위하여”, 그리고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기 위하여”라는 두가지 명제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하였으며, 그 결과 그들이 올바르게 자신을 인식하고

현실에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데 있다. 이런 점에서 프로그램은 발달과정상 초등, 중등, 성인으로 나누어 몇가지 예를 제시하고자 한다.

[초등학교(고학년)]

활동1. 로봇

· **목 표**

본 활동은 파트너와 함께 감정표현을 가능하게 한다.

· **절 차**

파트너를 선택하고 처음에 누가 로봇을 할 지 결정한다. 로봇은 무감정, 무반응의 표현을 유지하면서, 파트너에게 얼굴을 외면하기도 하고, 파트너를 향해 다시 얼굴을 돌리기도 한다. 로봇이 파트너쪽을 향할 때, 로봇의 목소리로 질문 - 너는 누구냐?- 을 한다. 그리고 파트너의 간단한 응답을 기다린다. 파트너는 낱말이나, 구절, 은유나 비유로 응답한다. 처음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이든지 지우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의미를 찾으려 하지 않는다. -단지 이미지나 느낌, 생각, 당신이 들은 목소리에 대한 메시지를 말한다.

· **나누기**

1. 나의 느낌은 어떠한가?
2. 나 자신에 대하여 무엇을 배웠는가?

활동2. 중요한 타인

· **목 표**

본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체계에 바탕을 둔 자신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인식하고, 자신에 대한 좋은 감정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과 긍정적인 자존감을 갖기 위해서 피해야할 것을 스스로 예측한다.

· **절 차**

참여자들에게 그들이 존중하는 과거 또는 현재,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존재하는 인물 3명의 사람에 대한 목록을 만들도록 한다. 3명의 목록을 작성한 후, 그들의 무엇이 존경하도록 했는지 그 특성들을 기술하도록 한다.

같은 방법으로 참여자가 아주 싫어하는 과거 또는 현재,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존재하는 인물 3

명의 사람에 대한 목록을 만들도록 한다. 목록을 작성한 후 그들의 어떤 점이 싫도록 하는지 그 특성을 기술한다. 각자는 그들이 작성한 목록을 다시 보고 자신 안에 있는 이런 특성을 재구성하거나 소유하도록 역할극을 해 본다.

· 나누기

1. 존중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에 따라서 어떠한 느낌이 들었나?
2. 자신의 어떤 점을 알게 되었나?

활 동 3. 감사한 마음 나누기

· 목 표

이번 활동은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감사함을 마음에 지니기보다는 자유롭게 나누어 보도록 장려한다.

· 절 차

1. 각각의 구성원들은 자신을 기분 좋게 해준 학급친구 1-2명을 생각한다.
그들은 나를 어떻게 기분 좋게 했나?
2.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 나는 그들이 한 것에 관해서 무엇을 좋아했는가?
3. 나에게 이런 느낌을 준 사람에게 가서 나의 느낌과 감사함을 나누어 본다.

· 나누기

1. 이 활동에서 어떠한 느낌을 받았는가?
2. 실제로 감사함을 나누어 보고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중 · 고등학교]

활 동 1. 자존감 표현 수레바퀴

· 목 표

본 활동은 참여자들이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에 초점을 두어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보도록 하여 자신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킨다.

· 절 차

안 쪽과 바깥 쪽에 각각 8개의 의자로 원을 만들고 서로 마주보도록 배열한다. 주어진 주제들을 토론하고, 2분 후 안쪽 원은 왼쪽으로 하나씩 돌게 되고, 다른 파트너와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토론한다.

· 가능한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1. 내가 아주 잘하는 것
2. 나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사람
3. 타인의 비난에 대하여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4. 내가 아주 편안함을 느끼는 장소
5. 내가 갈망하는 목표
6.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인정하는 것
7. 내 자신에 대하여 행복을 느끼는 시간
8. 최근에 겪은 위험
9. 나에게 가장 영향을 준 사람

· 나누기

1. 이 활동에서 어떠한 느낌이 일어났는가?
2. 자기에 대해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3. 다른 사람들에 대해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활 동 2. 분노와 감사

· 목 표

본 활동은 참여자들에게 어떤 사람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고, 분노 뒤에 숨어 있는 감사함을 발견함으로써 상대방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한다.

· 절 차

당신을 실제로 분노하게 하는 어떤 사람이 대해 생각한다. 당신을 화나게 하는 어떤 사람, 또는 함께 하기에 당신이 약간의 어려움을 갖는 어떤 사람이 당신 앞에서 당신을 쳐다보고 있다고 상상한다. 이 사람을 자세히 떠올린다. 무슨 옷을 입고 있나? 등등. 이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분노를 표현한다: “길동이, 나는 ... 점에서 당신에게 화가 났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화가 났는지를 정확하게 말한다. 실제로 이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느낌을 갖는다. 몇 분 동안

이 사람에게 화가 난 긴 목록을 만든다.

이제 이 분노의 목록표에서 분노의 각 단어를 가려내어서 감사라는 단어로 대체하여 이것을 그 사람에게 말한다. 말하는 동안 기분이 어떤지 음미하고, 무엇을 깨달았는지 살펴본다. 예를 들어, 나의 분노가 다음과 같다면 “나는 당신이 허약한 것에 분노한다. 왜냐하면 당신 대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라고 말한다. 다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는 당신이 허약한 것에 감사한다. 왜냐하면 당신의 허약한 점이 나를 강하고 비교적 유능한 존재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부분에 주의한다. 그 분노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분노하는 단어를 감사라는 단어로 바꾸지 않고 한 단계 더 나간다. 몇 분 동안 이것을 하고 당신이 분노에서 어떤 것이라도 감사히 여길만한 것을 찾아냈는지 알아본다.

· 나누기

1. 대화를 나누는 동안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
2. 이 활동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적어도 3개 이상 배운 것에 대해서 나눈다.

활 동 3. 부모에게서 벗어나기

· 목 표

다음 활동은 한 개인이 자아개념과 자존감에 대한 부모의 상호 영향의 효과를 더 잘 지각하도록 돕는데 있다.

· 절 차

눈을 감고 편안하게 앉는다. 아주 안전하게 느끼는 방에 앉아있다고 생각한다. 곧 부모님 중 한 분이 문을 열고 걸어올 것이다. 부모님이 문을 열고 걸어와서 옆에 앉는 것을 보는 동안, 천천히 깊게 숨을 쉬면서 긴장을 풀고 접촉한다.

잠시동안 부모님과 그냥 앉아 있다. 부모님을 본다. - 무엇을 느끼는가? 부모에게 어떻게 느끼는가를 말한다. 당신이 몹시 말하고 싶은 모든 것을 표현한다. 당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시간이다. 어떤 용무라도 완료하는 시간이다. 이때 당신의 느낌을 지각한다.

이제 역할을 바꾸어 당신의 부모가 되어서 대답한다. 당신의 아이들이 말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가? 어떻게 느끼는지 아이들에게 말한다.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말한다.

· 나누기

1. 부모로부터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
2. 부모와의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의 자아존중감이 형성되었는가?

[성인(부모 · 교사)]

활동 1. 자아개념의 뿌리

· 목 표

본 활동은 자아개념의 발달상에 있어서 타인 특히, 부모의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절 차

1. 가족 내에서 누가 나를 비난했으며, 무엇을 비난했는가?
2. 가족 내에서 나는 어떻게 인정받았는가?
3. 나의 가족은 나의 성취나 실패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4. 가족 내에서 누구의 의견이 중요하였으며, 나의 느낌이나 생각들이 받아들여졌는가?
5.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나에게서 무엇을 기대했는가?
6. 가족 내에서 누가 나의 흥미를 북돋아 주었으며, 어떻게 북돋우었는가?
7. 내가 실수를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무엇을 느꼈나?
8. 나의 부모님은 나를 어떻게 존중하는가? 죄책감, 공포, 비평, 달콤한 말, 칭찬?
9. 나는 부모님을 어떻게 닮았는가?(외모, 가치관, 교육, 직업, 재미를 느끼는 방법, 듣는 양식, 태도)
10. 나의 부모에게 수용되고, 사랑받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했는가?

· 나누기

1. 이 활동을 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
2. 나 자신의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3. 나는 부모님에게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활동 2. 자기 용서

· 목 표

이 활동은 당신이 죄를 느끼거나 부끄러워 하고 자기 용서를 향하여 마음이 움직이도록 용기를 북돋워 주어 보다 큰 내적인 평화를 갖게 한다.

· 절 차

1. 나 자신에 대해 나쁘게 느꼈던 사건을 생각해 보고 그것을 기록한다.
2.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3. 나는 어디에 있었으며 누구하고 있었는가?
4. 나는 어떻게 느꼈으며, 무엇을 생각했는가?
5. 나는 무엇을 요구했는가?
6. 어떤 고통이 나의 행위에 영향을 주었는가?

· 나누기

1. 이 활동과정에서 어떤 느낌이 일어났는가?
2. 이 활동을 통해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3. 나의 어떤 점을 용서할 수 있는가?

활 동 3. 어린 시절의 별칭

· 목 표

이 활동을 통해 당신이 성장할 때 당신에게 붙여졌던 별칭을 밝히고 평가하며, 당신의 자존감에 이러한 별칭의 효과를 재인식한다.

· 절 차

1. 어렸을 때 나를 표현하는데 자주 사용되었던 2개의 별칭을 생각해 본다.
내가 생각하기에 긍정적인 것 1개와, 부정적인 것 1개를 찾는다.
2. 각 별칭과 관련되는 어떤 기억이 있는가?
3. 각 별칭을 어떻게 얻었는가?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게).
4. 나의 별칭들 중 어떤 것이 신체적인 면과 관련되는가? 성격적 특징과는?
행동적 특성과는? 문화적 배경과는?
5. 나는 아직까지도 나에게 이 별칭들을 붙이고 있는가? 별칭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가?

· 나누기

1. 별칭을 떠올렸을 때 어떠한 느낌이 들었는가?
2. 별칭을 통해 나의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6. 인성교육을 위한 제언

흔히 부모와 교사들은 그들이 아동·청소년들에게 얼마나 부정적으로 관계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자녀·학생들이 긍정적인 행동은 비판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자녀·학생들의 부정적인 행동은 재빨리 말한다. 부분적으로 이러한 태도는 문화적으로 사람들이 만족해 하거나 긍정적인 것은 흔히 “당연한 일”로 생각하게 되지만, 그들에게 부정적인 것은 마땅히 수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게 된다. 대체로 사람들은 그들이 받아들인 피드백에 대해 가치 비중을 두게 되는데, 만일 피드백이 그들이 존경하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면 그들은 그것에 순응한다. 그러나 그들이 그 사람을 가치롭지 않다고 여기면 그 피드백을 수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교사는 자녀·학생과의 관계에서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인성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모른다. 질문, 공감, 자기노출, 즉시성, 직면, 해석 등은 모두 부모·교사가 가치롭게 여기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부모·교사가 지녀야 할 기본 태도는 먼저, 부모·교사 자신이 인격적으로 성숙해야 한다. 이것은 실존적 과제를 자각하는 것이다. 인격적으로 성숙한 부모·교사는 매일 매일 민감한 태도를 지녀 자녀·학생과 감동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부모·교사는 인간 내부에서 싹트기 시작하는 가치의 발아에 대한 발견자이어야 하며, 인내력을 가지고 그것을 주의 깊게 지켜보는 의사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좋은 인성을 가진 부모·교사가 갖춰야 할 몇가지 태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교사는 자신의 내적 자각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진정한 자기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의식 수준을 높여주어야 한다. 우리의 현재 모습은 과거 경험의 총체이며, 어린 시절의 모든 경험은 지금의 나의 행동을 지배한다. 부모·교사는 자녀·학생을 만나면서 끊임없이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누구의 필요를 채우고 있는가? 내 자녀·학생의 필요를 채우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있는가? 내 행동이 자녀·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등의 질문을 하면서 그들을 만나야 한다. 부모·교사가 자녀·학생에게 무언가를 욕할 때에는 자녀·학생이 변화하고자 하는 동기를 얼마나 강하게 가지고 있느냐를 고려해야 한다. 예

를 들면,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고 그러한 감정을 억눌러둔다고 하자. 이럴 때는 학생으로부터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는 순간 교사가 학생에게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학생에게 말해야 한다. 그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겠지만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고 그 결과를 관찰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어린시절 부터 아동·청소년들은 인정받고, 죄책감을 회피하기 위해 가면을 써 왔다. 부모·교사는 자녀·학생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그들이 가면 아래 가려진 진정한 자기를 발견할 수 있게 그들자신의 내면 깊숙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의식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둘째, 아동·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용기 있고 의연한 태도를 갖도록 부모·교사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정범모(1997)가 일컫듯이 오늘날 아동·청소년들은 매우 심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테면, 잘 먹어서 허우대는 크지만 조금만 힘든 일에도 허덕거리는 '심체적' 심약자가 있는가 하면, 세상물정을 몰라 혼자 잘났다고 으쓱대지만 조금만 슬프거나 아프거나 무섭거나 하면 대성통곡에 대경실색에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정서적' 심약자가 있으며, 공부할 때 조금만 문제가 어려우면 으레 답을 남에게 구하거나 '답란'을 뒤져보는 '지적' 심약자가 있다. 용기란 근본적으로 어떤 행동을 무엇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무엇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을 말한다. 약은 맛이 있기 때문에 먹는 것이 아니라 맛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수 있는 인내와 적이 무섭지 않으니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무섭지만 싸울 수 있는 기백, 그리고 살기가 쉬우니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살아갈 수 있는 의연함을 길러 주어야 한다.

셋째, 부모·교사는 아동·청소년들에게 솔직한 모습으로 다가가야 한다. 부모·교사의 중심 기능은 자녀·학생들에게 그들 자신들의 장점들을 깨닫게 해 주고 그 장점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들을 발견하게 하며, 그들이 되기를 원하는 인간이 어떤 존재의 인간인가를 분명히 밝혀 주는 것이다. 자녀·학생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문제해결은 부모·교사의 일차적인 기능이 아니며, 오히려 부모·교사는 자녀·학생이 솔직히 자기의 행위와 삶의 스타일을 직시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의 삶의 본질을 수정하는 방법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부모·교사는 자녀·학생을 지지해 주고, 온정을 베풀지만, 때때로 도전과 대결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길러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부모·교사의 본질적인 기능은 자녀·학생에게 솔직하고 직접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이다. 이를 테면, 교사는 학생을 어떤 존재로 받아들일 것인가? 학생에게 어떠한 감정을 가져야 하는가? 교사는 학생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 한다. 그 때에 학생은 교사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관찰하고 검토하여 자기에게 합당한 것을 발견하고, 그 피드백에 기초하여 자기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부모·교사가 진실하고 솔직하다는 것은 그의 내적 느낌과 외적인 태도, 자신의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이 일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성교육의 개방성과 투명성으로 인해 자녀·학생들은 부모·교사가 지금 이 순간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가를 알 수 있다. 이처럼 부모·교사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낼 때 자녀·학생들도 그들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고 진실 되게 자각하고 경험하게 된다.

넷째, 부모·교사는 때때로 아동·청소년들의 행동을 적절히 수용하고 통제해야 한다. 어른 중심의 가정과 사회에서 태어나 배우고 자란 기성세대의 부모·교사들은 모든 것을 어른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네 마음에 들지 않는 자녀·학생들의 행동을 수정하고 싶어한다. “어떻게 하면 이런 버릇을 고쳐 줄 수 있을까?” 혹은 “저런 행동은 어떻게 지도하면 없어질까?” 등이 주로 부모·교사의 관심사이다. 부모·교사는 자신의 행동이나 기대가 달라져야 자녀·학생들이 변한다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는다.

그러나 좋은 인성을 가진 부모·교사는 각각의 자녀·학생들을 하나 하나의 독특한 개성을 가진 인간으로 존중하며, 그들의 사고, 감정, 행동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무조건적”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설사 자녀·학생의 생각과 감정표현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일단은 그대로 받아 준다. 학생은 그들의 생각과 감정이 그대로 이해되고 받아들여질 때 안도감을 맛보고 자신이 가치 있는 한 독특한 개인인 것을 체험하게 된다. 그 결과 자녀·학생들은 그들이 인정받고 신뢰받는 자라는 확신을 갖게 되어 그들로 하여금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무시나 따돌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된다.

다섯째, 교사나 부모도 아동·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좋은 인성을 가꾸기 위해 지속적

인 훈련을 쌓아야 한다. 자아존중의 결과로 인한 건강한 인성은 전 생애를 통하여 노력해야 할 목표들이다. 성인이라고 해서 따뜻한 감성과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어느 한 순간이라도 자신에 대해 깨어 있지 못하면 금방 좋지 않은 인성으로 변한다. 특히 인성은 인간의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므로 부모나 교사가 어떠한 마음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자녀·학생들에게 즉각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부모·교사는 사회교육과 재교육을 끊임 없이 받아야 할 것이다.

7. 마무리

인성교육은 부모·교사가 자녀·학생과의 만남의 과정에서 부모·교사의 도움으로 자녀·학생이 자신의 마음을 자각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실생활에서 자신의 개인적 활동은 물론 타인과의 관계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부모나 교사는 아동·청소년이 홀로 서서 자신의 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아동·청소년이 홀로 설 수 있으려면 우선 부모나 교사가 홀로 서 있어야 한다. 홀로 서 있어야 한다는 말은 넘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니 부모나 교사는 자신의 정체성이 안정되고 확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교사는 누구나 부모·교사이기 전에 끊임없이 자신의 성장을 추구하는 미숙한 인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자신의 심리적 안정으로 행복한 삶의 모습을 가꾸는 데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더구나 자녀·학생의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고 보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이므로 부모·교사 자신이 확고한 모델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어야 한다. 인성교육은 풍부한 지식과 예리한 분석력, 그리고 통찰력을 갖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것들은 부모·교사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지식과 분석력이 지혜로 연결되어 삶의 모습에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

아동·청소년들은 작은 실수를 통해 새 것을 배우며 자란다. 좌절도 하고 방황도 하며 상처를 입으면서 자란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은 값진 것이다. 그들은 일시적으로 실수를 하고 좌절도 하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잠재능력이 있어서 곧 정상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부모·교사들은 그러한 아동·청소년들을 일일이 챙겨주고 간섭하려 하지 말고 세심한 관심으로 지켜보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을 믿고 지켜보면서 부모·교사들 스스로 좋은 본을 꾸준히 보여주는 일,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인성교육이다.

참고문헌

- 강준모(1996). “人性教育,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학생지도연구」 제22집, 서울교육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고병학 역(1985). 의미치료, 하나의학사.
- 김기정(1998). “REBT에 의한 자기존중감의 향상 방안 : 그 이론적 고찰”, 「학생생활연구」 제16집, 서원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김낙구(1997). “고전과 바른생활 교재를 통한 인성교육 탐색”, 「학생생활연구」 제23집, 대구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김유진(1996). “실존적 공허수준에 따른 가치성향과 사회성에 관한 연구”, 「학생생활연구보」, 울산대학교 학생생활교육원.
- 김인자(1996). “인성교육의 내용”, 「상담과 지도」 제31호, 사단법인 한국카운슬러협회.
- 김인자 역(1992). 당신의 삶은 누가 통제하는가, 한국심리상담연구소
- 김정환(1994). “인간본성 및 인간관에 대한 기본 가정 분석”, 「학생연구」 제22집, 동아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박태수(1998). “청소년 가치관 정립을 위한 상담”, 「상담과 지도」 제32호, 한국카운슬러협회
- 손경학(1996). “가치선택에 관한 소고”, 「학생생활연구」 제22집, 대구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신극범(1996). “고도정보화 시대의 한국 교육의 과제”, 「교육학 연구」 제34권 제4호, 한국교육학회.
- 안귀덕(1995). “인성발달과 도덕교육”, 「학생지도연구」 제16집, 원광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원동연(1998). “다이아몬드 칼라의 인간상”, 「범죄예방신문」 (1998.10.10)
- 이명숙(1997). “인성교육에 대한 심리교육적 접근”, 「학생생활연구」 제23집, 대구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이숙종(1994). “현 한국사회의 도덕성의 문제와 교육적 과제”, 「학생생활연구」 창간호, 강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이윤옥(1998). “유아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학생생활연구」 제16집, 서원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장현갑(1997). “정서기능 개관”, 「한국 심리학회 1997년도 동계세미나」, 사단법인 한국심리학회.
- 정범모(1992). “21세기의 인간, 사회 그리고 교육”,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한국교육개발원
(1997). 인간의 자아실현, 나남신서.
- 조규빈 · 김성일(1995). “청소년의 가치관 확립을 위한 지도 방안”, 「학생생활연구」 12월, 강릉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조성국(1998). “칼 로저스(Carl R. Rogers)의 인간주의 심리학적 인간학”, 「학생생활연구」 제12집, 고신대학교 학생생활 취업정보센터.
- 한미정(1998).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죽음에 대한 태도간의 관계”, 「학생생활연구」제 10집, 서울여자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홍경자 · 유경수 역(1996). ‘나’ 를 사랑하기, 교육과학사.
- Erikson, E. H.(1968). Identity : youth and crisis, New York : Norton.
- Joseph, F.(1974). “Application of Logotherapy in Small Sharing Groups.”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13, 128-136.
- Frankl, V. E.(1967). “ Paradoxical Intention: A Logotherapeutic Technique.” In Active Psychotherapy, edited by Harold Greenwald. New York : Atherton Press(1975). The will to meaning foundations and applications of logotherapy, 이봉우 역(1986), 로고테라피의 이론과 실제, 서울 : 분도출판사,(1969). Man’s search for meaning introduction logotherapy, 이소민 역(1992). 죽음의 수용소에서, 서울 : 분도출판사.(1978). “Aspects and Prospects of Logotherapy”. The International Forum for Logotherapy 1, 3-6.
- Hall, C.S., & Lindzey, G.(1957, 1970, 1978). Theories of personality, (1st, 2nd, & 3rd ed.). New York : John Wiley and Sons
- Hinsie, L. E., & Campbell, R.(1970). Psychiatric dictionary(4th ed.). New York : John Wiley and Sons

- Kelly, E. C.(1962). “ The fully functioning self. In ASCD Yearbook”, Perceiving, behaving, and becoming, Washington DC :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 Marion, M.(1981). Guidance of young children, St. Louis : C.V. Mosby
- Maslow, A. M.(1954).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 Harper and Row
- Miller, S., Nunnally, E., & Wackwan, D.(1975). Alive and aware. Minneapolis : Interpersonal Communication Programs
- Patterson, C. H.(1966). Theories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New York : Harper& Row.
- Peck, S. M.(1978). The Road Less Traveled, 신승철 · 이종만 옮김(1991), 아직도 가야할 길, 부산 : 열음사
- Rogers, C. R.(1951). Client-centered therapy, New York : Houghton Mifflin
- Scofield, D. D.(Ed.)(1971). The Holy Bible.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Steiner, J. O.(1971). Scripts people live, New York : Grove Press
- Sullivan, H. S.(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Norton
- Tigner, S. S.(1993). “Character Education : Outline of a seven-point program”, Journal of Education, 175, 13-22

<abstract>

The Personality Educ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Park, Tae Soo

This study aims to enhance the personality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hich is called self esteem, to present a program of enhancing self esteem, and to demonstrate techniques for teaching in schools.

The personality is “humanistic character which defines and differentiates individuals” In human society, personality starts with love of others and love of ourselves. People with high self esteem, consider themselves worthy, and view themselves as equal with others. They do not pretend to be perfect. They recognize their limitations and expect to grow and improve. This quality can be enhanced in young people through the use of the Personality Education Program.

Personality Education Program divides three levels according to developmental steps.

First Level : Elementary School Students(5th-6th grade)

Activity 1 : Robot

Objective : This activity should be done with a partner. The helper and the client could do this together, and larger groups could be broken into pairs.

Activity 2 : Significant others

Objective : This activity helps one to understand positive and negative qualities as parts of the self.

Second Level :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7th-12th grade)

Activity 1 : Self Esteem Disclosure Wheel

Objective : This activity helps participants to focus on what they know about themselves and encourages people to share with others.

Activity 2 : Resentments and Appreciations

Objective : This activity first allows participants to sort through their negative

feelings about a person and also to identify what they are getting out of that resentment. Then participants can identify positive feelings about a person, and examine what they are getting from that appreciation, .

Third Level : Post Secondary Students

Activity 1 : Self-Forgiveness

Objective : Oftentimes it is hard for people to forgive themselves for real or imagined wrongs. This activity encourages people to examine events over which they feel guilt or shame and to try to move towards self-forgiveness.

Activity 2 : Negative Self-image

Objective : This activity is to help people better understand how negative self-images have an impact upon them.

All activities fully detailed in my thesis "The Personality Educ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Prarents and teachers should help children and adolescents to enhance their self esteem through this program. To enhance self esteem of children and adolescents, during the procedure, 1) listen to acknowledge, and accept them, 2) treat them with respect and acceptance, 3) give specific praise and constructive criticism, 4) use on "I" message rather than on "you" message, 5) be a good model- think well of yourself.